

Are you familiar with Aesop’s Fables? They’re stories that also have a moral application. One that’s relevant for us this morning concerns the fox and the grapes. One hot day, the fox was feeling very thirsty. He saw a bunch of grapes hanging high up in a tree. ‘Just the thing to quench my thirst’ he said. But, try as hard as he could, he was unable to reach the grapes. Having failed, he walked away saying, ‘I’m sure they were sour.’ According to Aesop, the moral is this story is: **It is easy to despise what you cannot get.**

이솝 우화에 대해 아시나요?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아침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는 여우와 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더운 날 여우는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여우는 나무 높이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를 보고 “목마름을 가시기에 딱 좋겠구나” 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송이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를 한 여우는 뒤돌아 떠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신 포도였을 거야”. 이솝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경멸하기는 쉽다.**

Sadly, many people treat God in the same way. When they’re in trouble, they pray. But, when nothing happens, they say that God doesn’t exist. Or, they say that He may exist but doesn’t care. The Australian journalist, Terry Lane falls into the latter category.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계시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호주 저널리스트인 테리 레인은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Terry Lane was training for the ministry (in another church). During his course he couldn’t reconcile suffering and the goodness of God. Whatever faith he might have had, he lost. Strangely, for many years now, he has found it hard to stop talking about God. But, if you don’t believe in something, why keep talking about it? Philip Adams, another atheist, is the same. Perhaps even more so than Terry Lane, Philip Adams cannot stop talking about God.

테리 레인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그는 고난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또다른 무신론자인 필립 아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테리 레인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Well, what do you do? You see the suffering that’s in the world. We see people suffer in our own country. And, most probably, many of your prayers are unanswered. You wonder why God allows bad things to happen. When you pray for God to intervene, you wonder why He doesn’t. You’ve never seen Him. Furthermore, we pray for revival. But then you wonder why He doesn’t revive His church.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중 많은 것들이 응답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 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돕지 않으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부흥시키시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Consider Habakkuk’s position once again. Habakkuk complained that God was slow to answer him. 1:2, 3,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Why do you tolerate wrong?** Then, when God tells Habakkuk that He’ll send the Babylonians against them, Habakkuk is horrified. We hear his horror in 1:12, **O LORD, you have appointed them to execute judgment; O Rock, you have ordained them to punish?** How could God use a people more wicked than Judah to punish them? After all, the Babylonians were certainly more wicked than Judah.

하박국의 입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의 늦은 응답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1 장 2,3 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셨을 때 하박국은 겁에 질립니다. 1 장 12 절에 그의 공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 그들을 처벌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확실히 악했는데 말입니다.

God’s answer is summarised in 2:4, 5a **“See, he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indeed, wine betrays him.”** The rest of chapter 2 is taken up with how God will bring down the one who is *puffed up*. The Babylonians would be punished. Meanwhile, the righteous live by faith. The one who knows God will live by faith in God. This is the heart of Habakkuk’s message to us. Times may be bad and things may get worse. But, the righteous live by faith in the One who is worthy of our faith. Chapter 2 ends by saying (2:20), **But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let all the earth be silent before him.**

하나님의 답은 2 장 4, 5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2 장의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2 장은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2:20) 로 끝납니다.

In Psalm 46:10 we rea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This is not a command to rest or to enter a cave and meditate. It’s a result of God ending all hostilities, recognizing that God is sovereign over all of history. And, it’s a call to faith in God, to know Him and praise Him. We read further, in Psalm 46:7, 11,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This is our God, who has promised never to leave us or forsake us (Hebrews 13:5b).

시편 46:10 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쉬거나 동굴로 들어가 명상을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하는 부르심 입니다. 이어 시편 46:7, 11 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 13:5b).

What is our frustration? Like Habakkuk, we don’t see an end to war. We don’t see an end to poverty and disease in the Third World. We don’t see the end to Christians being persecuted. In recent weeks many lives have been lost because of fire and flood. And thousands have died in war. Why doesn’t God intervene?

우리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합니다. 제 3 세계의 가난과 질병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박해당함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주간 화재와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천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실 까요?

One day, I was watching a Chinese movie. A man, inside his own house, was fighting another man. Suddenly, the first man’s son rode on his tricycle into the room. Immediately, both men ceased fighting. Sadly, they began fighting again as soon as the boy left.

어느 날 저는 중국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다른 남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첫번째 남자의 아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는 바로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나가자 두 남자는 바로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We need another son to enter the room, God's Son. For, His return will bring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Listen to Hebrews 9:28,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the sins of many people; and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But, those events are in the future, on a day we cannot predict.

So, like Habakkuk, we must wait. But note the way in which he waits. He doesn't 'throw in the towel' [= give up]. Instead, he turns to God in prayer and worship.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재림이 새 땅과 새 하늘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28 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 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날에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기다려야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방법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의지합니다.

We have a lot to learn from Habakkuk. In our times of trial, his attitude is one for us to adopt and make our own. Listen again to 3:2,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This seems to be a simple verse, but it demonstrates to us the right way to approach to God.

하박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박국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3 장 2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간단한 구절 같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first way to approach God is with *humility*. No longer does Habakkuk argue with God. He doesn't question God's ways, as he had at first. Nor does he make any further protest about God's judgment upon Judah. Earlier, his prayer had been that Judah didn't deserve severe punishment. For, the Babylonians were a cruel race of people. Now, he submits to God's will.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하나님께 다가가는 첫번째 방법은 겸손하게 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랬 듯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갖지 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그는 유다가 가혹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in Habakkuk's faith. At first his focus was on the problems in Israel. Then he began to compare the sins of the Jews with the wickedness of the Babylonians. Now, his eyes are on God. He sees things very differently. Before him now is the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God. With his renewed concern for the glory of God, he has stopped making comparisons.

하박국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문제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죄를 바벨론 사람들의 사악함에 비교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된 하박국은 비교하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His vision of **the LORD in his holy temple** has shifted his focus. From such a spiritual viewpoint, we can only confess (Romans 3:23),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God's holiness and our sinfulness are the only things that matter.

Have you come to see your need for humiliation? Each day we're confronted by the sin of the world. And, if we're honest, we're confronted by our own sin. Is your attitude to this still, 'Why does God allow this?' Or,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f so, then you haven't learned the lesson that Habakkuk learned.

그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보게 됨으로써 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게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달으셨습니까? 매일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죄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아직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 실까?’ 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할까?’ 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박국이 깨달은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Do we have any right to complain when God’s judgments come upon us? Have we any right to protest? If we answer yes to those questions then we do two things. Firstly, we deny God’s sovereignty and His providence. As someone once said, history is His Story. We see in Habakkuk how God rules over history. At the same time, God provides for His people. Secondly, we’re still in a state of denial over our own sin. If we protest our innocence, then our God is too small. We have lost sight of His holiness and our sin.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불평을 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의를 제기할 할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두 질문에 ‘네’ 라고 대답 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 듯이 역사 (history)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박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공급하고 계십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직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What can we do? It’s as if we need to change our glasses. Let us take off the glasses that make comparisons with others in our favour. Let us put on spiritual glasses. With them we see our sin and our need for salvation. We see our need to confess sin and trust in the Lord Jesus Christ. For, with these spiritual glasses we’re confronted with the holiness of God.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경을 바꿔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안경을 벗고 영적인 안경을 씩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We cannot come to God saying, ‘I know I’m not perfect, God, but *I’m better than Bill Smith or Mary Jones, You should listen to me. After all, I’m a Christian and I give generously...*’ Come with that attitude and you’ll have an ineffective prayer life. So, come with an attitude like Habakkuk. He learned to pray, ‘It’s only by grace that I can pray. Lord, it’s only by grace that I can enter Your presence. At your invitation, O Lord, I lay my petitions before You.’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저는 빌 스미스나 메리 존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저는 크리스찬 이고 아낌없이 베풀기 때문이에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면 효과적이지 못한 기도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과 같은 태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저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You may have been a church member for many years, taught Sunday school, sung in the choir, or even been an elder, but God is under no obligation to answer your prayers. If we remind God of our goodness then we’re praying in our own name. You and I cannot make those kinds of claims upon God. God is not our debtor.

여러분께서 교회의 오랜 멤버이거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거나,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거나, 심지어 장로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Yet there is a claim you can make: that Christ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He has paid the price for your sin. United to Christ, and only in Christ's name, do you and I have any grounds to come to God in prayer. If we're to see revival in the Christian Church it will only happen when God's people humble themselves. We read in 2 Chronicles 7:14,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하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의 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질 때에만 크리스찬 교회들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 장 14 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Secondly, approach God with *adoration*.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Habakkuk is at worship. [The word *shiggioneth* is hard to translate. It's thought to be a musical term. Later, the word *Selah* (also untranslatable) is another musical term.] Worship is acknowledging God's true worth. And so Habakkuk stands in *awe* of God. This is not fear. He has no fear of the suffering that is to come. God has revealed His plan to him. He has meditated upon God's Word and God's presence in His holy temple. Now, he comes to God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두번째,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shiggioneth* 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악 용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뒤에 *Selah* (또 다른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는 단어도 음악 용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A useful acrostic to help us pray is **ACTS**: 'A' for adoration; 'C' for confession of sin; 'T' for thanksgiving; and 'S' for supplication [= petition, our requests to God]. Rightly, adoration comes first. It's the most important and so we want to spend the most of our time in adoration of God. But what happens is often quite different. We rush through the first part in a hurry to present our requests. This isn't very effective. Our reques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our worship. We find that we tend to centre more on our needs and desires. Our prayers will not be God's desires. Focussing on ourselves is not a godly approach to prayer.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ACTS 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는 경배 (adoration); 'C' 는 죄의 고백 (confession of sin); 'T' 는 감사 (thanksgiving); 그리고 'S' 는 간구 (supplication). 당연히 경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부분은 급히 지나쳐서 우리의 부탁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탁이 예배보다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있어 거룩한 방법이 아닙니다.

Instead, focus on God, on His attributes, His qualities. Focus of His mighty acts of redemption; how He has saved His people in the past and in the present. Begin with a reading from the Bible. Then, in praise and adoration, respond to what God has said and done. Do that and you'll find your requests change. You'll be more in line with God's will and His desires. And, you'll find more of your prayers are answered.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집중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에; 그의 백성들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구원하심에 집중 하십시오. 성경을 읽음으로 시작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에 대해 찬양과 경배함으로 응답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가 원하시는 것과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We read in Hebrews 12:28,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be thankful, and so worship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awe.** It's easy to become far too familiar with our holy God. Yes, we come into His presence with *holy boldnes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But, we must always come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Thus, we read in Hebrews 12:29,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So, we are to come into the presence of God on His terms. One thing then stands out, His holy nature and our sin. Rightly, we humble ourselves, and with reverence worship and adore Him.

히브리서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거룩한 대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29 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우리의 죄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Thirdly,** approach God with your *petitions*. Habakkuk's petitions are far different from what he was saying a few chapters ago. 3:2b,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There are two petitions. The first is that God would renew His deeds. Secondly, that God would remember mercy in His time of wrath.

세번째,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몇장 앞에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3:2b,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는 2 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는 것과 진노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Habakkuk prays for God to act once again for His people. Gone are thoughts of his needs and desires. There's no petition for ease or for deliverance. Judah deserved what was coming to them.

In effect, Habakkuk prays for revival, a new work on God's part. Revival means to make alive something that was dead. We have the New Testament idea of that in 2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Before coming to know Christ you were spiritually dead. New life comes to you, i.e., you are born again, in Christ. In other words, the spiritually dead area made alive in Christ.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시한번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편안함이나 구원을 위한 청원은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사실 하박국은 부활(revival),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 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5:17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Earlier, Habakkuk wanted God to change His mind regarding the Babylonian invasion. Now, he knows that God will begin a new work instead. Notice how Habakkuk phrases the first part of his petition.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Revival often comes in bad times. The Reformation, in the early 16<sup>th</sup> century, came when the Church was in bad shape. Alexander VI had been the pope of the Catholic Church. He filled the Vatican with his illegitimate children. All across Europe the Church was in a bad condition. People were superstitious and ignorant.

예전에는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간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회복(Revival)은 안좋은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세기 초의 종교개혁은 교회가 아주 많이 타락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톨릭교회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4세는 바티칸을 사생아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교회는 아주 안좋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신적이며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Then, God had mercy on His church. He raised up Martin Luther (and others). At first, Luther had been terrified by the righteousness of God. But then, he came to understand that *the just will live by faith*. Centuries earlier, Habakkuk had the same fact revealed to him—the righteous live by faith (2:4).

As a Christian, what is your main concern? What worries you most? Is it the events in the world around you? Or, is it the name and the glory of our Almighty God? Habakkuk had only one concern, the revival of God's cause in Israel.

'Revival' also has the idea of preserve, or to keep alive as well as to purify and correct, to get rid of evil. Thus, in the history of every revival God has purified His Church. He gets rid of sin, all that hinders [= holds back] His cause.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틴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것이라는 사실을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세기 전에 하박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4)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주로 어떤 걱정을 하십니까? 당신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까? 하박국은 오직 한가지, 하나님에 의한 이스라엘의 부흥 (revival),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보존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순수하고 올바르게 만들고, 사악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복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정화하셨습니다. 죄악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셨습니다.

God also prepares His Church for deliverance. Habakkuk's final appeal in 3:2 is simple, and it touches our hearts. ***In wrath remember mercy***. He doesn't complain about their coming punishment. Nor does he try to diminish the sins of Judah. Instead of reminding God of their merits, he asks that God, in His wrath, remember mercy. In the face of Judah's sin, he can only ask that God would act according to His character and remember mercy.

Let us remember that God is the God of mercy. When we pray for mercy, even in the day of wrath, we pray for that which is central to His character.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교회를 구원을 위해 준비 시키십니다. 3장 2절에서 하박국의 마지막 호소는 간단하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다의 가치나 장점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는 대신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유다의 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성품대로 행 하시도록, 긍휼을 잊지 않으시도록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진노를 받는 날이라도 우리가 긍휼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The Lord Jesus told a parable about a Pharisee and a tax collector (Luke 18:9-15). The Pharisee was proud of his great spiritual achievements. In the temple, he prayed, (Luke 18:11b-12),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robbers, evildoers, adulterers—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But the tax collector was aware of his great failures.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He prayed (18:13b),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The Lord Jesus has summarised Habakkuk chapters 2 and 3. The Pharisee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 On the other hand, the tax collector is the ***righteous*** man who ***lives by his faith***.

His prayer is: ***In wrath remember mercy.*** It is this man who, says the Lord Jesus, goes home ***justified*** (Luke 18:14).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눅 18:9-15). 바리새인은 그의 영적인 성취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눅 18:11b-12),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18:13b),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 2 장과 3 장을 요약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편, 세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눅 18:14).

The message of Habakkuk is that we must humble ourselves and see ourselves as God see us. We must confess our sins and commit ourselves into His hands. Until we do these things we have no right to peace and happiness.

This applies to the Church as a whole, but especially to us as individuals. Ask yourself, ‘Is there something in my life that deserves God’s wrath? Am I what I ought to be?’

When things go wrong reflect on the state of your soul. Ask, ‘What is God saying to me and doing to me? What am I to learn through this experience?’ Finally, commit yourself to God. Pray that in His justice, He remembers His mercy and that He will use you for His glory.

하박국의 메시지는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평안하거나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개인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것이 내 인생에 있나? 내가 살아야 하는 대로 살고 있나?’

뭔가 잘못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That was Habakkuk’s new attitude and it’s true of all of God’s prophets. It’s also true of the Church when God brings about revival. Think less about whatever threatens the Church. Be more concerned for her health and purity. Above all, be concerned about the holiness of God and the sinfulness of this generation.

이것이 하박국의 새로운 태도였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부흥시킬 때의 교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건강과 순결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세대의 죄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Habakkuk 3:2,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Amen***

하박국 3: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